

## 로컬플러스

## 올해 군산항 항만 물동량 증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종빈)에 따르면 군산항을 통한 항만 물동량은 2016년도 6월말 현재 940만t으로 2015년 동기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화물 중 수출은 자동차 부품 등의 티항 이용 등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한 161만 4000t, 수입은 11% 증가한 617만 6000t으로 수출입 화물은 전년대비 7% 증가했으며, 연안화물은 167만 6000t으로 9% 감소했다.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는 타항에서 들어 와서 다시 나가는 환적 차량 증가 등으로 6월말 현재 수출량은 10만 7000대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주요 수입화물인 사료원료는 250만t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는 신규항로(宁보상해), 개설 및 항로연장(광명항) 등으로 6월말 현재 2만 4468 TEU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중국화물 증가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무학산~용두산 등산로 정비

익산시 용인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일 무학산에서 용두산 등산로(4.7km) 정비 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이날 방문객 및 등산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리본달기 행사를 전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들은 “표지판 설치와 리본달기를 통해 무학산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어 보람된다”며 향후에도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종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용인면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시민들이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계운 코스모스 길 조성사업을 위해 용인면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코스모스 꽃밭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장양원기자

##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융합원’으로 법인명 변경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가 군산국 가산단지 내 전문 산업인력양성 및 R&D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출발을 하게 됐다.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사장 나의균, 원장 이학진)에 따르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관변경 요청을 승인받고 법인명을 ‘융합본부’에서 ‘융합원’으로 변경,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산학융합지구 사업 전담 3개팀을 운영했던 조직을, 산업단지 내 전문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개발센터를 신설, 산하에 인력개발실, 정책기획실 등 3개실로 조직을 개편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 동산동 ‘홈그린’ 익산시청에 상황부식음료 1,000박스 전달

익산시 동산동에 소재한 홈그린(대표 이사 홍정하)이 20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황부식음료 1,000박스(3,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는 정현을 시장, 홍정하 대표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홍정하 대표는 “익산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음료를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무더운 여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탁된 상황부식음료 1,000박스는 행복나눔마켓·뱅크에 전달되어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홈그린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완료한 식품상황부식음료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군산=장양원기자



## 익산시-CJ프레시웨이 업무협약

## 농특산물 유통활성화·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상생 협력사업 발굴

익산시와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주), 횡동농협, 예산농협은 20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상생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CJ프레시웨이 문종석 부사장, 횡동농협 최사식조합장, 예산농협 박성배 조합장, 예산농협 생산자 단체 및 계약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익산시는 CJ프레시웨이(주)에 우수농산물(쌀, 양파) 공급을 활성화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횡동농협에서는 백미 7,000톤

예산농협에서는 양파 2,000톤을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산지의 상생발전 모델 발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J프레시웨이(주)는 양질의 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세계적 식품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동반성장의 기회를 갖게 됐다.

횡동농협 및 예산농협은 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계약 재배 농가 등 지역 생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생산성과 수익성 확대를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CJ프레시웨이

(주)에 감사와 환영을 표하고 “이번 협약은 세계적 식품도시를 꿈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에 한발 더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산물 판매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정적 판로를 확보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1년부터 횡동농협의 농가들과 쌀 계약재배를 실시해왔다. 익산 토질에 적합한 고품질 디수확 품종인 ‘보람찬’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 ‘햇반’을 가공·판매했다. ‘햇반’은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간편식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익산시 주요 생산 농산물인 쌀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지역 LPG 가격 인근 시군에 비해 높아

## 유기정보사이트 오피넷 조사 결과 전국평균 736원보다 10원 비싸 평균 가격 상회

군산지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인근 시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정보사이트 오피넷(2016년 7월 12일 기준)에 따르면 군산 지역 14개 충전소의 LPG 평균 가격이 1당 74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충전소(평균 770원)

를 제외하고 전주시 706원, 서천군 718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북 평균 722원보다 24원, 전국평균인 736원보다 10원 비싸 전국 대비 평균 가격을 상회했다.

최저가 충전소인 A업체는 LPG 716원, B업체는 719원 등으로 저렴한 반면, 최고가인 C업체의 경우 767원으로 지역에서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충전소 가격이 높은 현상은 군산이 익산이나 전주 지역에 비해 타 지역 차량의 유입이 많지 않아 지역 차량들만 주로 이용하고 전체 차량 대비 가스차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PG차량은 운행중인 한 운전자는 “장애인 택시 등 주로 어려운 분들이 IPC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군산 지역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충전소 대표는 “지역에서 비싼 곳은 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고정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자동경쟁이라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해경, 고군산군도 관광객 사고 대응 나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부분 개통 후 관광객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응급환자 후송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 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관광객 대부분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선유도까지 버님길을 볼고 있다.

하지만 차량 개통 구간 이외에는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비포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 사고별생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13일과 지난달 22일에도 자전거를 타던 관광객이 넘어지면서 골절사고를 당하는 등 지난 3개월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통해 방문했던 관광객 사고가 7건 9명이 이른다.

이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동시에 차량 개통 구간 이외에는 대

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비포장)

으로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다

상에서의 구급차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경은 신시도~무녀도까지 순찰차와 순찰정(艇)의 순찰횟수를 늘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을 비치하는 한편 상시 동원이 가능한 민간지구 조선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증에 따라 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지원, 이송 기관별 육·해상의 원활한 공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혈관플러스사업’ 실시

## 오는 27일 까지 옥구읍 7개 마을 주민 400여명 대상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혈관플러스사업을 실시한다.

건강혈관플러스사업은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옥구읍 7개 마을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보건소와 군산의료원, 종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뇌졸중이 이해와 위험요인, 응급증상 및 적절한 대처방법, 정기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나트륨·체온·식습관에 대한 교육과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초기검진 및 알콜 의존도 검사 등의 개별 건강 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호응도 및 고위험군 등록 비율 등

세부기준에 의해 마을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마을로 선정시 참여주민에게 개인별 인센티브(기념품 지급)와 건강마을 현관을 달아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건강증진 제고를 위해 지역건강조사결과 건강위험 취약지를 찾아 건강증진의 기회와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건소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박대성 경위

## 경찰청 빛낸 ‘6월 현장영웅’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나운지구대에 근무하는 박대성 경위가 경찰청을 빛낸 2016년 6월 현장영웅에 선정됐다.

박 경위는 지난 6월 자신이 겸직한 절도 피의자 A씨의 여죄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집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쓰레기 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저장강짜증이란 특이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안에 쓰레기 냄새를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모으는 등 그 증세가 심해지자 가족마저 피의자를 떠나 혼자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다.

박 경위는 “범죄 피해자 가해자를 때지기 전에 모두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또한 경찰관의 의무이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장영웅은 경찰청 대변인실에서 매월 각 17개 지방청 산하에서 발굴된 모범사례들을 엄선, 최종 3명의 베스트 경찰관을 선별하여 ‘현장영웅’이라는 칭호를 선사하고 경찰청 표창을 수여하는 시책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북서부보훈청 ‘이동보훈 일일 현장체험’ 실시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지난 19일 7.27 정전협정(63주년)과 UN참전의 날 및 보비스 선포 9주년을 맞아 ‘이동보훈 및 보훈접김이 일일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우리 정부가 2013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감사 표시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 참전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국의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동맹국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계기로 이우실 지청장은 이동민원 및 보훈접김이 일일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각종 보훈민원의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신청민원의 접수, 증명발급 등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고령·상이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6.25전쟁유공자(최병호(부인군)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 기사·말벗 등 보훈접김이 역할을 통해 그분의 어려운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위

/군산=장양원 기자

## 익산 제4일반산단 입주 이엔코리아 준공식

익산 제4일반산단지에 입주한 (주)이엔코리아가 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2016년 7월 20일 현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이형규 부무지사, 황현 도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주)이엔코리아는 친환경 탄소소재 전문 기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개발한 탄소응용필름 및 전기필름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등 1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집도 기업이다. 현재 국내 글지의 식품기기들에 포장지를 납품하고 있으며 익산 공장 신축을 통해 연매출 10조원 규모의 국내 패키징 시장을 선점할 물론 탄소 소재를 이용한 마스크팩 생산에도 신규 진출하게 된다.